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구성과 남성성의 변화*

— 생태적 대안에 대한 모색

박혜영**

[초 록]

본 논문은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특징적인 젠더의 구성 원리를 살펴보고, 그 일환으로서 변화된 남성성의 특징을 고찰하여 이와 같은 새로운 젠더 구성이 갖는 인문학적인 의미를 성찰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먼저 신자유주의 시대의 중요한 특징으로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homo economicus)의 인간관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성별과 무관하게 단일한 소유욕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개인을 의미하며,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자본주의의 발달 이후, 즉 18세기 자유주의 고전경제학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인간관이다.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젠더 구성 원리에 대

* 본 논문은 2016년도 인하대학교 일반교수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과제번호 53755-01).

** 인하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주제어: 신자유주의, 젠더 상보성, 호모 에코노미쿠스, 단일욕망, 상품화, 호모 폴리틱우스

Neoliberalism, Gender Complementarity, Homo Economics, Single Desire, Commercialization, Homo Politicus

한 이론적 논의는 이반 일리치, 웬디 브라운, 마리아 미즈 등의 입장에서 드러나듯이 성별과 무관하게 단일한 욕망을 지닌 인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이전 비산업사회의 젠더 구성 원리인 상보성과는 대치되는 특징으로 오직 경제에만 매진하는 새로운 인간의 등장을 의미한다. 자연을 돌보고 공존을 모색하던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리로서의 젠더의 역할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르러 보다 개별적인 성역할로 축소되고 탈정치화되면서 남녀 공히 자본주의의 상품화에 취약해지게 된다. 나아가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단일 욕망 중심의 젠더 구성은 남녀관계에도 변화를 초래하여 남성성의 개념도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재편성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르러 자연파괴와 사회공동체 해체 등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의 인간관의 부상 은 몸의 성적 특성으로서의 섹스를 강화시키게 만든다. 그 결과 인간은 더욱 고립되고 개별화된 인적자본으로 변환되었으며, 이런 식의 상품화로 인해 남녀 간의 혐오나 성차별, 고립도 심화될 뿐 아니라 남성 젠더가 역사적으로 누렸던 호모 폴리틱스(homo politicus)의 역할도 축소되기에 본 논문은 이에 대해 대안적 젠더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1. 들어가며

본 논문의 구상은 그동안 페미니즘연구에서 신화처럼 자리 잡은 몇 가지 고정관념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가령 남자와 여자를 젠더와 섹스라는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젠더는 정말로 개별적인 성별구분에 따른 개별적인 성역할인가, 그리고 경제가 더욱 발전하면 과연 남녀관계는 평등해질 것인가이다. 이 세 가지 물음은 특히나 젠더해체에 주력해온 버틀러(Judith Butler)나, 해러웨이(Donna Haraway) 등과 같은 포스트페미니즘 이론가들의 글을 읽으면서 깊어졌는데, 그것은 이들의 젠더 연구에 두 가지 중요한 변수가 빠져있다고 보

았기 때문이다. 첫째는 최근의 젠더연구는 비서구사회나 아래로부터의 관점에서 젠더를 보지 않는다는 의심이었고, 둘째는 젠더를 개별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공동체나 자연과의 공존과 연계하여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을 제외하면 젠더와 공동체를 연결하거나 자연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는 것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여성젠더를 차별해온 억압논리가 자연과의 유사성이자 공동체주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이건 남성이건 간에 인간은 다른 타자와 공존을 요구받는 사회적 존재일 뿐 아니라 지구라는 자연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젠더 논의에서 공동체와 자연은 중요한 요소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특히나 빠른 경제성장으로 자연은 더욱 파괴되고, 사회공동체는 급속하게 해체되며, 인간관계는 더욱 단자화되어 가는 신자유주의시대를 반성하고 바람직한 공존을 도모해야 하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특징적인 젠더의 구성 원리를 살펴보고, 그 일환으로서 변화된 남성성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여성성에 대한 고찰이 우선되어야 하나 여성 젠더의 문제는 더 많은 지면을 요구하는 복잡한 것이어서 다음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200년에 걸친 페미니즘의 발전은 지난 200년간 서구가 추구해온 근대화(modernization) 내지는 산업화(industrialization)의 역사와 정확히 맞물려있다. 1792년 페미니즘사상의 첫 포문을 연 울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의 『여성권리의 옹호』(*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en*)는 주로 투표권과 교육권에서의 남녀평등을 요구하였는데, 이런 요구는 정치적으로는 군주제가 아닌 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하고, 경제적으로는 봉건제가 아닌 자본주의 체제를 발전시킨 동력과 얽혀있다. 다시 말해 페미니즘은 시민권 확대와 사유권 보장에 기초한 근대 개인주의의 등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추구가 사회계약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 시작한 새로운 체제와 함께 성장했다는 의미가

다. 물론 여기서의 자유는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자유를 의미하지만 이와 더불어 고전주의 정치경제학에서 말하는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도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하겠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더욱 전면에 나오게 되고,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발달은 남녀관계를 둘러싼 젠더인식과 젠더 구성에도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로 인해 모든 사회관계망이 경제중심주의로 급속히 재편되는데, 그 일환으로서의 남녀관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난다. 가령 우리사회를 살펴보면 남녀관계에도 전혀 없이 기이한 현상이 시작되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 <일베>와 <메갈리안> 논쟁에서 드러난 여성혐오와 이를 미러링한 남성혐오의 확산(여기서 misogyny란 혐오나 증오를 넘어선 모든 여성 차별적 인식을 통칭하기에 남성혐오란 용어는 미러링 이상의 의미는 없다), 모든 세대에서 증가하는 이혼율과 젊은 세대에서 더욱 증가하는 비혼율, 고도로 시장화 되어가는 결혼제도와 그로 인해 더욱 좁아진 결혼시장 진입, 혼밥이나 혼술과 같은 극단적인 고립적 자유주의의 확산과 그와 반대로 컴퓨터기술의 발달로 더욱 팽창하는 가상공간과 가상관계망의 등장, 그리고 전혀 없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남녀 간의 임금격차와 낮은 출산율, 가파르게 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강간, 매춘과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의 증가는 사실상 페미니즘은 물론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이룩한 경제발전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기현상이다.¹⁾ 경제성장이 과거와

1) 2014년도 OECD 국가들의 <성별 임금 격차>(Gender Wage Gap)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격차는 36.7%로 격차 지수가 회원국 가운데 1위이다. 그런데 1880년대 영국에서도 여성들은 남성들의 임금에 비해 약 60퍼센트 정도밖에 받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100여 년이 더 지난 지금도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들보다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강력범죄는 총 1만5227건인데 이 가운데 약 87%는 여성이 피해자였으며, 같은 기간 남성 이 피해자인 사건은 1637건에 불과하다. 또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

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관계는 점점 더 분리와 갈등으로 치닫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공동체는 무너지고, 고립적 개인주의는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남녀를 둘러싼 전례 없는 기현상이 단지 일시적인 경기후퇴와 그로 인한 취업난에서 비롯된 조절 가능한 부작용인지, 아니면 18세기의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21세기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이르는 동안 더욱 가속화된 자본주의화로 인한 변화인지를 가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후자의 결과라면 자본주의가 우리 삶의 곳곳에 침투하고 모든 관계망이 더욱 자본에 포섭될수록 남녀관계도 기이한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의 관계에서 젠더의 구성을 살펴보려는 것은 이처럼 전례 없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남녀관계가 갈등과 혐오를 지나 점차 단절과 고립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남성의 경우 더 이상 과거의 젠더 위상을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가 남녀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이후 노골화된 남성권력의 약화나 남성성의 위기가 페미니즘의 성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연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이명호 44). 페미니즘에서 보자면 남성이란 처음부터 여성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men)을 대변하는 보편적 개념으로 등장한 젠더이다. 이런 연유에서 페미니즘은 젠더라는 개념어가 가령 계급이나 인종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치적 위상을 지니지 못한다고 비판해왔다. 다시 말해 사회의 발전과 함께 계급차별적인 발언이나 인종편파적인 행동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소위 민주적 의식이 성장했지만 젠더에서의 불평등이나 억압은 반민주적 문제가 아니라 남녀 간의 사적인 일로 간주되어 왔다는 것이

면 한국의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은 27.2%로 세 집 가운데 한 집에 해당되며, 놀라운 것은 모든 연령대에서 빠른 속도로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출산율로 2002년 이래 2016년까지 1.17명을 기록하였고, 올해는 1.05명이 될 예정이며, 이 기조가 계속된다면 2030년이면 매년 25만 명 정도밖에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게 된다.

다. 물론 젠더가 계급이나 인종처럼 사회조직의 중요한 원리나 정치적 분석범주로 인식되지 않는 한 여성에 대한 불평등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사소한 문제로 간주되고 성차별은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정희진 16). 이런 지적처럼 젠더불평등이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다뤄지기 보다는 사적영역의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 젠더에 대한 정치의식의 부재를 잘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남성이라는 소위 보편적 젠더의 위상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남성들도 젠더불평등을 들먹이며 (역)차별을 토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의 진위는 차치하고라도 남녀가 공히 상대를 비난하고 혐오하는 지금과 같은 단절로는 사회관계망속으로 더욱 파고드는 자본주의화를 제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공동체의 지속과 생태적 공존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젠더가 계급이나 인종처럼 과연 동일한 위상의 개념어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인종이나 계급과 관계없이 모든 공동체는 남자와 여자라는 두 젠더관계에 토대를 두고 있기에 젠더문제는 계급이나 인종처럼 일방적인 배타적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해버릴 수가 없다. 역사적으로도 흑백분리운동이나 흑백분리제도는 존재했지만 여성 분리는 불가능하며, 만국의 노동자들에게 단결하여 부르주아계급을 타도하자라는 식의 해결안은 제시되었어도 만국의 여성들에게 그런 혁명을 일으키자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젠더는 지금까지 이어온 인류공동체 존속의 토대였다는 점에서 배타적인 차별적 범주를 생성해내는 다른 개념어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상보적(complementary)이다. 남성성도 그 이데올로기적 혹은 헤게모니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단 남성성이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성성과의 상보적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의 특성을 지닌다. 중요한 점은 젠더가 지닌 이와 같은 상보적 특성이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점차 소멸한다는 것이지만 아쉽게도 에코페미니즘을 제외하고는 이런 변화에 주목하는 이론가들은 많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시대의

중요한 특징으로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의 인간관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젠더 구성 원리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오직 경제에만 매진하는 새로운 인간의 등장으로 인해 자연을 돌보고 공존을 모색하던 사회공동체의 구성 원리로서의 젠더의 역할이 어떻게 개별적인 성역할로 축소되고 탈정치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자연파괴와 사회공동체 해체 등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의 인간관의 부상으로 인해 몸의 성적 특성으로서의 섹스적 측면이 강화되고, 남녀 모두 더욱 고립되고 개별화된 인적자본으로 변환되며, 이런 식의 상품화로 인해 남성성도 여성성과 마찬가지로의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런 논의를 끝으로 대안적 젠더 개념을 모색함으로써 신자유주의시대를 반성하고 자연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젠더의 역할을 궁리하고자 한다.

2. 상보적 젠더와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등장

자본주의로 인한 남녀관계의 변화는 젠더에 대한 인식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본 논문은 자본주의 이전의 젠더와 이후의 젠더가 비록 동일한 명칭으로 호칭되어도 그 개념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비산업사회의 젠더와 산업사회의 젠더와의 차이점을 먼저 검토함으로써 이와 같은 젠더인식의 변화가 18세기 이후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상이 사회전면에 등장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토착사회와 구별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젠더 구성의 특징에 대해서는 일리치의 논지를, 이후 신자유주의시대에 전면화된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젠더 부재의 특성에 대해서는 웬디 브라운(Wendy Brown)의 논지를 검토하고자 한다.²⁾ 두 비평가 모두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실제

로는 젠더라 부를만한 그런 특성이 없는 젠더부재형(genderless) 인간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되는(becoming) 것이라는 인식 이후 페미니즘은 이분법적인 젠더위계의 비대칭성을 설명하고자 젠더를 섹스와 분리하여 설명하였다. 젠더와 섹스를 분리하는 이분법을 통해 여성성이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따라서 남녀차별은 불평등한 젠더인식에서 비롯된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임을 설명할 수 있었다. 페미니즘은 젠더와 섹스를 분리함으로써 자연물인 섹스보다는 문화적 구성물로서의 젠더가 남성적 권력에 의해 차별적으로 구성되는 지점을 발견하였고, 이때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젠더적 특성이 이와 같은 젠더 질서를 강화하는데 동원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처럼 젠더와 섹스로 이분화시킴으로써 페미니즘은 젠더라는 사회적 특성이 일종의 권력적 구성물로 작용하여 남녀차별의 논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밝히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최근의 남성 젠더의 위상에 담긴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과, 나아가 근본적으로 젠더와 섹스로 나누는 이분법적 한계를 노정하는 문제점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나 신자유주의시대 사회전면에 등장한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더 이상 남성

- 2) 비주류 현대문명 비판가인 일리치는 현대 서구문명이 기대고 있는 고정관념(certainties)을 의심하고 그 신화적 맹목성을 분석함으로써 산업문명이 인간사회와 자연생태계에 가한 기형적 변화에 주목한 사상가인데, 특히 자본주의와 젠더와의 관계를 분석한 그의 논의는 이후 마리아 미즈(Maria Mies)를 비롯한 에코페미니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대표적인 고정관념을 분석한 저서로는 『탈학교 사회』(Deschooling Society), 『병원이 병을 만든다』(Medical Nemesis), 『그림자 노동』(Shadow Work) 등이 있다. 미국의 정치사상가인 브라운은 신자유주의 시대가 구조조정이나 민영화와 같은 경제적인 체제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였고, 나아가 호모 폴리티쿠스로서의 인간이 소멸하고 젠더 부재의 인간형인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전면에 배치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주목한 이유는 이와 같은 호모 폴리티쿠스적 성격을 상실한 데모스의 출현으로 민주주의가 협소해지고 정치적 무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성, 여성성과 같은 젠더의 구성원리를 따르지 않을뿐더러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속성상 젠더 자체가 과거처럼 큰 차별적 원리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우리시대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만 있다면 경영자나 노동자가 여성이건, 남성이건, 이성애자이건 동성애자이건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섹스는 몸의 차이를 표시하는 생물학적인 것으로 젠더는 이런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 사회문화적으로 차별화된 역할로 이해되지만, 이와 같은 젠더와 섹스의 분리는 근대적인 분석틀이며 자본주의 이전의 비산업사회에서는 실제로 섹스가 젠더와 분리되기 어려웠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관점은 현대적 시각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렵고, 전통사회가 여성차별의 근거지였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토착문화가 남아있는 농촌사회를 생각해보면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는 방식에 섹스(생식기 중심의 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젠더 표식이 동시에 존재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육체적 차이 외에도 일하는 모습이나 사용하는 도구, 사용하는 언어와 점유하는 장소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지역마다 손쉽게 젠더를 구별하였다.³⁾ 실제로 거리가 멀어서 성별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가령 양떼를 몰고 있다면 소년이고 거위를 몰고 있다면 소녀이며, 대개의 경우 이런 식의 구별은 같은 공동체 사람들 사이에서 관습적으로 수용되었다(Illich 68). 일리치는 전통적인 젠더 개념을 산업화 이후의 젠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3) 일리치(Ivan Illich)에 따르면 젠더라는 용어는 원래는 문법에서 명사가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 가운데 어느 젠더에 속하는지를 지칭하고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였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듯이 모든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남성과 연관되는 장소, 시간, 도구, 언어, 태도, 인식과 이와 반대로 여성과 연관된 것들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 젠더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젠더는 여성성 아니면 남성성이 주를 이루며 이런 이중성에 토대를 둔 것이 토착문화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Illich, 3-4. 이후 일리치 인용은 모두 Ivan Illich, *Gender* (New York: Pantheon House, 1982)에서 번역하여 인용함.

전자를 버내쿨러(vernacular) 젠더라고 불렀는데, 그 호칭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가 비산업사회에서 찾아낸 젠더가 산업사회의 젠더와 다른 만큼 그 차이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 가장 중요한 차이는 버내쿨러 젠더란 두 젠더와 연관된 언어, 장소, 계절, 태도, 일, 도구, 가축, 농작물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넓은 범주이며, 이때의 젠더는 몸(섹스)과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가변적이거나 구성적인 역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산업사회에서의 젠더란 그 안에 생물학적인 섹스뿐 아니라 기타 모든 표식을 포괄하는 집단적 구별이기에 이 경우의 섹스는 젠더로부터 분리되어 개별화되기 어렵다. 이런 까닭에 토착사회는 남자와 여자 두 젠더의 서로 구별되는 집단적인 공동 역할에 토대를 둔 젠더 상보성으로 결합하게 된다. 가령 남자들이 하는 일과 여자들이 하는 일은 공동체마다 서로 구별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경우에도 두 젠더의 협업 없이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젠더와 연관된 자본주의체제의 가장 큰 전제는 인간은 젠더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한 욕망(경제적 이기심)을 지닌다는 것이다. 동일한 욕망으로 인해 남녀 모두 동일노동이 가능하고 동일한 성취도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게 된다. 일리치는 젠더인식에서의 이런 변화가 생긴 원인에 대해 18세기의 스미스(Adam Smith)로부터 시작된 소위 자유주의 경

4) ‘버내쿨러’란 말은 로마법전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상품’과 반대되는 뜻으로 쓰였다고 한다. 즉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내에서 소비하기 위해 집에서 만든, 집에서 짠, 집에서 키운 것을 뜻했다. ‘버내쿨러 젠더’는 산업시대 이후 ‘경제인간’(homo economicus)이라는 단일한 욕구를 가진 인간이 등장하기 이전의 인간을 뜻하며, 성별에 따라 서로 구별되지만 상호보완적인 고유한 토착적 역할과 문화를 추구하던 인간을 말한다. 그래서 일리치는 ‘버내쿨러 젠더’와 ‘이코노믹 섹스’(economic sex)의 차이를 전통사회와 산업사회의 차이로 간주했다. 자본주의의 경제성장은 이런 토착적 젠더의 파괴를 수반하는 동시에 이코노믹 섹스를 통한 임금 차별을 구가하며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경제적 차별이나 여성의 노동을 그림자노동으로 억압한 것은 산업사회에 와서 가속화되었고, ‘성역할’(sex role)이란 개념도 산업사회의 젠더부재의 인간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Illich, p. 68.

제학(고전주의 경제학)이 무엇보다 ‘젠더부재의 경제학’(genderless economics)이었다는 점을 들었다(Illich, 11). 즉 성별과 무관하게 ‘단일한 소유욕’을 지니고 시장에서 그 욕구를 추구하려는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새로운 인간관의 출현 없이는 산업사회는 등장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젠더부재의 ‘소유적 개인’(possessive individual)인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주체로 등장하면서 모든 관계는 욕망과 재화간의 한계효용에 의해 결정되었고, 무한한 욕망에 대한 재화의 희소성(scarcity)으로 인해 젠더의 상보적 특성은 더 많은 이윤에 대한 선망(envy)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Illich, 12). 이로 인해 산업사회부터는 욕망하는 몸이 젠더 표식의 주요 기호로 등장하게 된다. 남녀가 동일한 언어, 행동, 노동,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젠더표식을 섹스로밖에 할 수 없는 ‘젠더부재’(genderless)형 인간의 출현으로 점차 섹스(몸)는 중요한 표식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페미니즘의 주장처럼 과거의 젠더 상보성이 차별적이고 비대칭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대체로 오랫동안 여성은 비주류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관습화된 여성성은 젠더차별의 이데올로기였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 그 상보성으로 인해 오히려 젠더간의 권력관계에는 공동체마다 한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와 제한이 있었으며, 지금처럼 어느 한 젠더를 둘러싼 극단적인 공격과 혐오와 단절은 일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일리치가 찾아낸 비산업사회의 젠더에는 상보성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비산업사회의 젠더는 산업사회에서처럼 개별적(individual)으로 수행되는 탈장소적, 탈시간적인 성역할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전체를 구별해주는 집단적 특성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논지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페미니즘적 관점에서는 수용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젠더란 개별적인 성역할을 말하며, 그런 젠더행위는 개인이 처한 정치적, 문화적 접점에 의해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연극적 행위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즉 고정된 행태로서의 젠더가 아니라 행

위자에 앞서 행위로서의 젠더가 우선하기에 남자와 여자라는 두 젠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별적 젠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령 버틀러의 다음 설명을 보자.

만일 어떤 사람이 ‘여성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며, 따라서 그 용어는 완전한 의미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젠더화된 ‘사람’이 젠더의 특정한 고유장치를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젠더는 다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늘 가변적이고 모순적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이며, 담론적으로 성립된 정체성의 인종적, 계급적, 민족적, 성적, 지역적 양성들과 부단히 마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젠더’를 정치적, 문화적 접점에서 분리해내기란 불가능하다. 젠더는 늘 바로 그 접점에서 생산되고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⁵⁾

버틀러는 보편적인 가부장제라는 개념만큼이나 보편적인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일종의 신화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체성은 결과로 알려진 그 표현물 때문에 수행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젠더의 표현물 뒤에는 어떠한 젠더 정체성도 없기 때문이다(버틀러 131). 수행행위로서의 젠더 구성은 결과적으로 젠더를 지극히 개별적인 의미로 국한시키는데, 이때의 개별성이란 젠더가 한 개인에게 국한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개인의 개별화된 행위에 국한해서만 젠더를 겨우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개별성을 말한다.⁶⁾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론은 성차별의 토대로서의 젠더 권력을 해체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와 같은 개별성이 거의 없던 비산업사회, 혹은 토착사회의 집단적인 젠더문

5)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조현준 역(서울: 문학동네, 2006), 89쪽. 이후 버틀러의 모든 인용은 모두 이 번역서의 페이지임.

6) 박혜영, 「공유재로서의 젠더와 자연: 그 상실과 회복을 위한 대안적 상상력」, 『생태와 대안의 로컬리티』(부산: 부산대학교, 2017) 참조.

화를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자와 달리 후자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개별적인 수행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즉 공동체 내의 두 집단인 남자와 여자에게로 승계되던 일종의 무형적인 공통성 (commons)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⁷⁾ 공동체 존속의 물질 토대인 가령 토지나 강과 같은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차원에서 남녀의 상보성에 토대를 둔 젠더문화도 일종의 ‘사회적 공통자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⁸⁾ 따라서, 비산업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젠더는 고유의 장소와 시간을 공유하는 공동체 문화의 일부이며, 그런 까닭으로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전승된 토착어나 관습, 교육, 그리고 자연환경을 이윤추구의 대상이나 시장의 원리에 내맡길 수 없듯이 개별적으로 사유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공통성으로서의 젠더는 포스트페미니즘의 주장처럼 가변적이거나 일시적, 수행적이지도 않으며, 해체할 수도 없는 그런 성격을 띠게 된다. 물론 자급에 토대를 둔 토착공동체들이 자본주의화로 인해 빠르게 소멸하면서 젠더의 이런 공통적 특성도 사라지게 되

-
- 7) 피터 라인보우, 역사 해제 “커먼즈의 번역에 관하여” 참조. 역사에 따르면 커먼즈라는 개념은 보통 공통의, 공유의 의미를 내포하지만 그대로 음역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단어의 바탕이 되는 지역마다 독특한 생태계와 그 속에서 계속해서 집단적으로 누렸던 공유지(the commons)의 삶이 자본주의에 의해 파괴되어 그 의미가 준거할 현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인보우에 따르면 18세기까지만 해도 영국의 들판은 대체로 개방되어 있었고, 소작농과 아이들, 특히 여성들이 커밍(communing)을 통해 자급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커먼즈는 단순히 땅을 공유라는 물질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유지되던 삶의 방식, 인간관계, 사회문화, 관습법과 기본권과 같은 무형의 공통자산도 모두 포함된다.
- 8) 일본의 경제사상가인 우자와 히로후미에 따르면 ‘사회적 공통자본’이란 사적 자본처럼 개별 경제주체에 의해 사적인 관점에서 관리, 운영되는 자본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통자산으로 운영되는 모든 자본을 총칭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자연자본, 사회자본, 제도자본이 있다. 비록 자본이란 용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사유화 내지는 자본주의화되어서는 안되는 공유적 성격의 모든 물질, 비물질적 자원을 아우르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우자와 히로후미, 이병천 역, 『사회적 공통자본: 진보적 공공경제학의 모색』(서울: 필맥, 2008), 25쪽 참조.

는데, 일리치는 버내쿨러 젠더문화가 사라지면서 개개인의 사회적 성역할(social sex role)을 의미하는 근대화된 젠더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성을 중심으로 개별화된 산업사회의 젠더를 ‘사회적 성’(social sex)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버틀러가 젠더의 비본질성과 불평등을 문제 삼고자 수행성이나 복장전복과 같은 개념으로 해체하려고 했던 젠더는 사실은 이와 같은 자본주의체제 이후에 등장한 ‘근대적 젠더’, 다시 말해 사회적 성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일리치의 젠더론을 중심으로 경제제도의 변화가 젠더인식의 변화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자급과 공유지에 토대를 둔 비산업사회의 젠더와 임금노동과 사유재산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시대의 젠더는 그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거의 사라진 전자의 특성에 주목한 이유는 자본주의체제가 심화되면서 남녀 간에 성평등 보다는 성차별(sexism)적 경향이 더 노골화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최근의 포스트페미니즘 논의에서 젠더가 아닌 섹슈얼리티(sexuality)가 정체성의 주요 표식이 되고, 나아가 ‘차이’와 ‘차별’을 결정짓는 중요한 개념어로 등장하게 되는지를 통해서도 반증된다. 포스트페미니즘이 등장한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의 모든 영역이 전방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경제논리에 포섭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경제논리란 시장화나 상품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을 철저하게 시장행위자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로만 존재하도록 만드는 논리로, 인간의 모든 생애활동(연애에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죽음에 이르기까지)을 자발적 차원에서 오로지 시장적 가치, 효율성, 가성비 등을 기준삼아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제 시장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갈피를 못 잡기도 하고, 쇼크에 빠지기도 하며, 충격에서 벗어나려 이성적 판단을 동원하기도 하는 어떤 인격체인 것처럼 인식된다. 젠더에서 문화적 공통성이 사라지고 개별적 차이만이 강조되는 다성주의(multi-sex/ gender/ sexuality-ism)의 등장이 정치적으로 더욱 다양성이 인정되는 민주주의의 확산을 가져올 것

인지, 아니면 몸 중심의 상품화와 획일적인 소비문화의 확산을 가져올 것인지는 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본 논문에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지금의 생태파괴와 사회해체를 공통성(commonality & communality) 없는 다양한 개별적 젠더로 막을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미즈(Maria Mies)와 같은 생태사상가들은 18세기 이후 시작된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이라는 성별 노동분업(sexual labour division)이 이제는 가내 경제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도 확산되어 가정주부만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가난한 남반구(the South)와 그 기반 위에서 풍요를 누리는 부유한 북반구(the North)로 양극화되는 전 지구적 ‘가정주부화’(housewifization)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⁹⁾ 예를 들어 비산업사회에서는 공통적, 상보적인 젠더노동이었지만 산업사회의 등장과 함께 성별노동으로 전락해버린 가사노동의 경우도 자본주의가 가속화될수록, 즉 경제성장이 더 커질수록 사라지거나 남녀 간에 평등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내의 다른 여성에게로 전가되거나, 아니면 가난한 제3세계의 여성들에게로 떠넘겨지는 일종의 외주화의 길을 걷게 된다는 점을

9) 미즈를 비롯한 에코페미니즘은 결국 자국 내에서의 성별 노동분업이 제국주의시대에 이르러 제국 본토와 식민지 외부간의 국제적 노동분업으로 확장되었을 뿐 기본적으로 노동분업이라는 자본주의의 작동원리는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 미즈는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일하는 이런 식의 노동현실을 노동력의 ‘가정주부화’(housewifization)라고 불렀다. 그녀는 이런 노동현실이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더욱 사회저변부로 확대될 것이고, 따라서 조만간 남성노동력의 ‘가정주부화’도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미즈가 자본주의의 이런 노동분화 현상을 ‘가정주부화’라고 젠더적 은유로 부른 이유는 노동에서의 성별분업(sexual division)이 부유한 ‘북’(the North)과 가난한 ‘남’(the South)이라는 국제지역간의 노동분업(international division)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the South)의 원주민들의 노동은 가사노동에서의 주부와 마찬가지로 경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취급된다. 이렇게 주부화된 보이지 않는 노동이 사회 하층부 다수를 차지한 자본주의 경제모델이 바로 미즈가 말한 빙산모델(Iceberg Model)이다. 비단 주부들의 가사노동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노동자, 자급적 농민의 육체노동 등도 모두 수면 아래 노동에 포함된다. Maria Mies, *Patriarchy &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New York: Zed Books, 1998), p. 184.

들 수 있다. 미즈와 일리치의 논의에 따르자면 자본주의 이후 젠더는 성별에 따른 일종의 개별적인 성역할로 축소되었고, 이처럼 개별화됨으로써 비산업사회보다 자본주의 이후 성별노동 분업의 영역이 더욱 증가되었다고 하겠다. 그에 따라 가정 내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은 오히려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빈부격차와 생태위기에 직면하여 미국 최초의 생태페미니즘 이론가였던 킹(Ynestra King)은 “우리는 썩은 파이를 똑같이 분배하는 것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Warren 128).

경제체제의 변화가 젠더인식에 이와 같은 변화를 초래했다면 신자유주의시대 이후 남녀관계는 어떻게 변모될 것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서의 이행’이라는 무성(無性)적인 경제학 용어로 기술되는 산업사회로의 변환으로 남녀의 심성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젠더와 섹스 사이에 생긴 균열이 더욱 커지고 공통적 젠더문화가 사라져 모든 생애주기가 자본에 포섭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와서 아이러니하게도 성차별이 문제가 되고, 남녀 간의 고독감, 소외감, 분노감, 혐오감은 증가하고, 공동체의 근간이었던 가정은 더욱 빠르게 해체되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삶의 기술과 지혜가 전승되던 그런 생태적 지속성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남녀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남성성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시대의 젠더 구성 원리를 살펴보자 한다.

3.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와 남성성의 변화

최근 들어 남성, 혹은 남성성의 위기를 언급하는 일이 많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남성은 여성과는 달리 처음부터 정치적 주체였다는 것은 분

명하다. 남성은 고대부터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정치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폴리스체제에 필요한 입법, 사법, 행정과 같은 정치활동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브라운 112). 가령 호모 폴리티쿠스(homo politicus)로 인간(이때는 남성)의 본성을 상정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란 도시국가라는 주어진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정치적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의 정치적 본성이 단순히 통치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치적 본성이란 기본적인 필요(need) 이상의 것을 주는 폴리스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보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결속과 표현, 법, 행위, 도덕적 판단, 윤리적 역량을 길러 단순한 생존 이상의 ‘좋은 삶’을 누릴 공공적 정의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었다(브라운 113). 물론 이때의 호모 폴리티쿠스는 성별로 보자면 남성이며, 따라서 페미니즘에서 비판하듯이 여성에게는 가내활동을 벗어난 공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주체성이나 본성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폴리스 공동체가 비대칭적인 젠더에 기반을 둔 가부장적 사회이고, 남성이 인간의 보편적 정치성을 대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인간의 정치행위란 좋은 삶을 위한 것이고, 그런 좋은 삶의 토대에는 타자와의 상보적 공존이 요구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성은 없이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등장을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기이한 것으로 볼 정도로 호모 폴리티쿠스로서의 본성은 좋은 삶의 기본 원리였으며, 이것은 적어도 18세기의 자유주의 경제학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브라운은 일리치와 마찬가지로 18세기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의 인간이 점차적으로 호모 폴리티쿠스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라고 본다. 문제는 호모 폴리티쿠스가 젠더상으로 남성이었다면,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더 이상 젠더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애덤 스미스의 시장동물에서 합리적 선택자와 신자유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의 인간이란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조차도 그 성

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브라운, 130). 즉 삶의 영역이 자본화될수록 인간은 개별적 자유의 행사자로 부각되는데, 그런 개인이 시장원리에 맞게 자유로운 이윤추구에 매진하는 한 그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체제 이후로 기존의 젠더관습은 더욱 사라져 지금은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늘려줄 수만 있다면 그 경제주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비산업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특징이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도 버내쿨러 젠더문화가 살아있는 곳에서는 남자들끼리 공유하고 전승하는 언어나 도구, 관습이나 놀이, 규범이나 노동이 있었고, 따라서 이런 경우의 남성성이란 일종의 젠더적 표식이 될 수 있었다. 물론 기본적으로 남성성이란 용어 자체는 실제의 남성과는 관계없는 정치적이고도 이데올로기적인 표식으로 쉽게 전유될 수 있는 것이지만, 적어도 비산업사회의 경우 남자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동체의 합의는 여자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보적 개념으로서의 젠더에 토대를 두었다는 뜻이다. 비록 남성 젠더와 여성 젠더 사이에 비대칭적인 위계와 권력구도는 존재했지만 적어도 어느 한 쪽의 협업 없이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었다.

브라운에 따르면 자유주의 경제학까지는(스미스에서 벤담, 밀에 이르기까지) 호모 폴리티쿠스가 무성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완전히 대체되지 않았기에 근대에 이르기까지 남성성은 호모 폴리티쿠스라는 정체성과 함께 공존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남성성이 확실하게 주장되거나 여성의 제외가 적시되는 않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칸트와 헤겔에 이르기까지 호모 폴리티쿠스에 관한 논의는 남성적인 기질과 활동 공간을 전제로 했다. 공동의 지배에 참여하는 것이든(아리스토텔레스), 군사적인 비르투(virtu)와 평행하는 것이든(마키아벨리), 남성적인 한계와 배짱에 비유되든(베버), 단순히 자율성, 합리성, 자기주권을 가리키든(근대)

호모 폴리틱우스는 거의 항상 남성으로 표현되었다(브라운 129).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남성성이란 폴리스에서의 좋은 삶에 필요한 시민성이자, 도덕적 덕성을 넘어 국가를 통치하는데 필요한 용맹과 기술 같은 자질이기도 하고, 나아가 자본주의를 낳은 근대적 합리성과 전문성이기도 하다. 여기서 호모 폴리틱우스로서의 남성성이 그것이 이데올로기였든 아니면 사회적 요구였든 간에 적어도 개인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의 좋은 삶과 연결되는 공동체적 특성을 지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호모 폴리틱우스가 비록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 젠더에게만 특권적으로 부여되었던 정치적 주체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이상적인 역할은 폴리스 공동체 내의 좋은 삶의 구현에 있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공동의 공존과 이익을 도모하는데 그 정치적 특권의 기반이 있었기에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전락하는 삶에 대한 경계가 있었던 것이다.

호모 폴리틱우스의 근간으로서의 남성성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당시의 이상적인 남성성은 지덕체를 겸비한 것이었다. 그리스의 남성육체의 미학과 로마의 강인한 군인정신에 중세의 기사도적 매너에 더해 제국주의 시대에 이르면 문화적으로 미개하고 타락한 피식민지 남성의 야만성을 압도할 수 있는 계몽주의적 근대성까지 갖춘 신사로서의 남성다움이 탄생하게 된다(Krishnaswamy 292). 대영제국을 대변하는 신사로서의 남성성은 피식민지인에 대한 계급적, 인종적 우월성 못지않게 문명적 우월성을 입증해야 했으며, 그것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끈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미덕인 합리성, 이성, 절제, 규율, 공정함, 관용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신사는 단순히 특정한 계급의 구성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장점과 자질에 근거하여 그 명칭이 부여되었다. ... 실제로 이상적인 신사는 계급의 문제를 매우 미묘하게 헤쳐 나가야 했으며

로 “지위의 차이를 의식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했다. 사실 신사의 정의에는 의복과 예의범절, 상냥한 태도, 자존심을 지키는 것과, 타인들에 대해 박애정신 등 다양한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신사는 겸손하고 정중하며 쾌활하고 상냥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무기력한 사람들을 억압에서 보호하고, 옳다고 여기는 일을 위해서는 용감하게 싸우고, 정당한 이유라면 어떤 반대에 부딪혀도 정의를 수호하고, 끝까지 소신을 지키는 능력을 갖추어야 했다. (박형지&설혜심 230-1)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자이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 시장주의자이며, 대외적으로는 계몽된 제국주의자이고, 여성과 약자에게는 온건한 가부장주의자라는 상호호순적인 애매한 남성성이 영국적 남성성의 표준으로 확립된 것이다. 그 결과 빅토리아조 영국신사들은 식민지 인도의 여성들이 야만적인 인도의 가부장제와, 마찬가지로 미개한 인도남성의 권력에 지배당하는 존재이기에 영국남성의 구원이 필요한 일종의 희생자로 여기면서도, 다른 한편 그 자신은 본국의 영국여성을 ‘집안의 천사’로 억압하며 희생시키고 있다는 근대적 남성성의 이중적 위치를 인식하지 못했다(Krishnaswamy 294). 물론 이런 남성성의 위기는 제국주의자면서 인도주의자이라거나, 계몽주의자면서 가부장주의자라는 이중적인 정치적 포지셔닝 때문에 시작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호모 폴리틱우스로서의 본성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완전히 전환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봐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시대에 이르러 변모된 남성성의 특징에서도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는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인적자본’(human capital)으로서의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단일 본성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남성성의 성격 역시 변화를 겪게 된다. 브라운은 그런 변화를 초래한 신자유주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불평등의 심화, 무분별한 상업화, 정부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 증대, 경제 혼란과 불안정, 이 모든 것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이며 대중의 반감과 시위의 대상이라는 건 분명하다. ... 하지만 이 책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다소 다르게 규정하고 신자유주의의 해악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일련의 정부정책, 자본주의의 한 형태, 자본가 계급의 수익성 회복을 위해 시장을 방임하는 이데올로기로 보기 보다는 미셸 푸코를 비롯한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를 그것이 강성할 때의 특정 가치관, 경제 관행, 경제 지표를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확장, 적용하는 통치 합리성의 형태를 띠는 규범적 이성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브라운 35)

다시 말해 브라운이 정의내린 신자유주의란 경제적 관점에서만 좋은 삶을 재구성하려는 기획이며, 이때의 기준은 경제적 합리성과 이성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경제적 합리성이란 바로 효용성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의 토대가 되는 이성적 판단에 의한 합리적 선택이란 사회뿐 아니라 개인의 효용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까지 포함하는 범주인 것이다. 항시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와 무한경쟁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개인은 실제로 이런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의 등장으로 시민-주체(남성)가 정치적인 것에서 경제적인 것으로 변형됨에 따라 남성의 경우도 사회적 공간과 정치적 공간에서의 자유의 행사를 예전처럼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르러 경제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남성의 경우 과거처럼 여성과의 비대칭적인 상보성에 기대어 안전하게 주체성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것이 신자유주의 이후 남성성의 위기 논란과 남자들의 역차별 주장이나 여성혐오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다. 과거의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남성에서 개별화된 ‘일개’의 남자인간으로 전락한 남성의 등장은 이제 남자라도 스스로 유능한 인적자본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성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이제 남성들 가운데 일부는

근대까지 당연하게 부여받았던 호모 폴리틱우스로서의 정치적 주체성을 잃게 된 것이다. 고대시대에는 그 자신이 도시국가였고, 19세기에는 제국이었고, 20세기에는 국민국가의 당연직 시민이었던 남성이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얼마든지 국가의 짐이거나 경제적 잉여이거나 정치적 비시민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남성조차도 비시민이자 비주체, 혹은 잉여적 존재나 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르러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고대 이래로 남성에게 특권적으로 부여되던 남성성과 그것이 권력, 지배, 통치와 결합하던 구조가 사라짐으로써 어쨌든 남성에게도 안전망이 걷히는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호모 폴리틱우스와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동시에 존재했던 근대와 달리 전자가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완전히 대체된 신자유주의 시대에 오면 이런 식의 변환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가 약화된다는 점이다(브라운 101). 민주주의가 약화된다는 것은 정치적인 후퇴이면서 동시에 사회문화적으로는 퇴행적인 현상을 낳기도 한다. 여기서 퇴행적인 현상이란 가부장제 성별 이분법에 균열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현상들, 가령 성적 소수자운동이나 하나가 아닌 복수적인 남성성의 발견, 혹은 남성들 사이의 차이 못지않게 새로이 발견되는 레즈비안 팔루스(lesbian phallus)와 같은 대안적 남성성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 없는 상태로도 가부장제가 약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일부 남성들의 여성혐오가 과거의 가부장제 체제에서보다 더 노골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우리사회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여전히 성차별적인 가부장적 사회임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신자유주의의 체제가 남녀관계를 둘러싸고 어떤 현상을 낳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자.

먼저 신자유주의시대 이후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전면에 부상하면서 남성의 경우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성에서 섹스(몸)라는 표식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가령 비산업사회의 남성이 정치적

주체로서 여성보다 우월한 젠더위상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남성의 고유한 젠더역할이 가령 전쟁과 같은 위기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존속에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시대에 이르러 남성젠더만 할 수 있는 젠더 영역이 거의 사라짐으로써 남성성 역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가령 지금은 남성이라도 임금노동을 하는 여성을 돌보는 가정주부가 될 수 있고, 가사노동도 떠맡을 수 있다. 이렇듯 고유한 젠더 영역이 사라짐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 젠더가 없는 단일한 욕망을 지닌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젠더문화의 소멸로 인해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경우도 섹스(몸)가 더욱 중요한 표식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남성도 상품화될 수 있고, 대상화될 수 있는 젠더가 되었다. 이에 따라 남성성 역시 여성성과 마찬가지로 시각화되어 상품시장에서 소비될 수 있다. 그리하여 남성도 여성성을 전유한 메트로섹슈얼처럼 남자 없는 남성성이 등장하기도 하고, 꽃미남과 식스팩을 오가는 분열증적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윤조원 138). 남성도 섹스가 젠더로부터 분리되면서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남성성, 혹은 섹슈얼리티가 무대로 올라오게 되며, 이렇게 자본에 의해 유동화된 남성성은 여성성과 마찬가지로 전유되고 패러디되기도 하고, 레즈비언의 부치의 경우처럼 여성적 남성성(female masculinity)으로 젠더벤딩(gender bending)되기도 한다. 가령 오늘날 우리나라와 일본사회에서 유행하는 ‘초식남’의 등장도 이런 신자유주의적 남성성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엄기호에 따르면 초식남은 자신이 가진 것을 타자와 나누지 않고 자신의 향유를 포기하지 않는 남성으로, 타자가 필요 없거나 타자가 단지 도구로만 존재하는 인간형을 말한다(엄기호 157). 스스로를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는 인간이자 모든 에로틱한 에너지가 자기에게로만 집중된 인간인 초식남은 지금까지 남성이 향유했던 모든 공공성은 포기한 채 오직 사적인 쾌락과 소비의 영역에만 머물러는 남성이다. 이런 초식남과 극단적인 위치에서 등장한 새로운 남성성으로 사이버 마초를 들 수 있다. 가령 <일베>와 같

은 사이버 남성 집단이 확대재생산하는 사이버 가부장주의는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특징으로, 경제양극화에 따라 자본과 여성을 소유할 수 없게 된 남성들이 사이버공간 안에서 신자유주의가 훼손시킨 남성성을 복원하고, 남성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성적 이미지를 교환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남성성을 수행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엄기호 161). 남성성이 생식기관으로서의 몸, 혹은 욕망기관으로서의 몸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은 단순히 남성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성성에 담긴 이런 변화가 결국은 남녀관계도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성성의 추락으로 여성의 상황은 나아지게 되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시대 남녀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적인 돌봄노동이 증가한다는 데 있다. 브라운은 호모 폴리티쿠스에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의 변환에는 필연적으로 여성화된 가사노동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는데, 이 점은 일리치가 일찍이 산업사회의 가정은 젠더의 공간이 아니라 성별 노동분업의 장소로 전락해버렸다고 한탄한 것과 맥이 닿는다.¹⁰⁾ 신자유주의시대의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인적자본으로서의 인간존재를 말한다. 여기서 인적자본이란 인간이 스스로를 투자 대상으로서의 자본으로 여기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인적자본의 자본력

10) 일리치에 따르면 비산업사회의 가정이란 공동체의 자급적인 공유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남녀의 협업(남자다움과 여자다움)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산업시대의 가정은 공동체와는 무관한 개별적인 임금노동에 기초해 있기에 이때의 가정은 성별 노동분업(이것은 젠더와 무관한 일종의 성역할로서의 분업)을 통하여 임금노동의 화폐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장소로 변모하게 된다. 이것은 산업사회의 맞벌이 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남녀 모두 가사노동을 평등하게 나눠서 하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도 이때의 가사노동이란 남녀가 구별된 젠더별 노동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를 더욱 효율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일을 나누어 하는 일종의 자조적인(self-help) 형태의 자기 부양적 노동이라고 보았다. 일리치는 이런 형태의 노동을 셀프서비스 경제(self-service economy)라고 불렀으며 산업사회에서는 이런 부분의 ‘그림자 노동’(shadow work)이 증가한다고 보았다(Illich, 57).

은 경쟁력 지수나 신용등급으로 결정된다. 이처럼 더 이상 통치(정치성)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경영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자기계발에 매진하는 기업가적인 개인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등장에는 더욱 많은 여성적인 돌봄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브라운 137). 왜냐하면 시장의 원리가 ‘교환’에서 ‘경쟁’으로 넘어온 신자유주의시대에는 개인의 효율성이나 능률 혹은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돌봄 제공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의 돌봄노동은 과거처럼 여성 젠더만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공재, 혹은 공공성의 영역이 모두 민영화되는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는 가정뿐 아니라 사회 전부가 비자본적인 인적 존재들의 돌봄 노동에 더욱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부상과 인적자본이라는 특정한 형태가 이전의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적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비해 사회적 합의의 젠더화를 심화시키거나 다른 방식으로 젠더화하는가? 이 질문에 나는 성 중속이 심화되며, 동시에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답할 것이다. 가정, 어린이, 은퇴자를 지원하는 공공 기반시설의 축소, 민영화, 해체를 통해 젠더화가 심화되었다. 값싸고 질 좋은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과 방과 후 프로그램, 여름 캠프, 신체 및 정신 보건 서비스, 교육, 대중교통, 동네 공원, 여가 시설, 공공 연금, 노인센터, 사회보장과 같은 공공 서비스와 시설이 철폐되고 민영화되면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노력과 비용은 개인, 특히 여성의 부담이 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공공재의 민영화라는 맥락에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이들을 책임지는 역할을 여전히 극단적인 비율로 여성이 떠맡는다는 점에서 ‘책임화’는 유독 여성에게 불리하다. 이런 점에서 가족주의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공공재 및 공공 서비스 민영화의 우발적인 결과가 아닌 필수 요소다(브라운 139).

가정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증대된 돌봄노동에 대한 요구는 꼭 여성이 할 필요는 없는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난한 여성들이 맡게 된다. 여성은 과거보다도 더 인적자본을 지탱하는 기반시설의 역할을 맡게 되고, 가정은 더욱 고도로 성별화된 노동분업에 따라 운영되고, 돌봄노동은 급기야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더 많은 여성들이 더 많은 돌봄업무를 불평등한 임금 속에 떠맡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인적자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3세계의 노동력이 동원되기도 하고 다른 여성에게로 돌봄노동이 외주화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시대에는 삶의 모든 과정이 외주화(말하자면 민영화)됨으로써 하나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 예전처럼 한 명이 아닌 수십 명의 소위 가정주부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코페미니즘이 산업사회 이후로 경제성장과 함께 가정주부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는 이유이다. 이처럼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모든 공간에서 규범이 되고, 인적자본의 가치 증대가 삶의 모든 영역을 관리하는 원리가 되면, 여성에게는 어떤 선택이 남게 되는지 다시 브라운의 말을 들어보자.

하나는 여성이 이런 진실에 자신의 행위를 맞춰서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되는 한편 세상은 생존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그것이 적용되는 세계의 결속을 유지하지도 못하는 통치 원칙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여성의 활동과 가사녀로서의 역할은 그런 세계를 이어붙이는 풀로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그런 수고를 여전히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여성은 늘 그랬듯 대접받지 못하는, 자유주의 남성 주체를 보조하는 소품이나 기구로서의 지위를 답습할 것이다. (브라운 137-8)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시대에 적응하고자 여성마저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된다면 (가성비가 낮은 출산과 양육을 거부하게 될 테니까) 인류공동체는 지속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지금처럼 성역할을 계속하게 된다면 이

제는 가정뿐 아니라 학교, 직장, 사회, 병원 어디에서든 전방위적으로 돌봄 제공자가 되어 성장하는 인적자본인 어린이, 이미 성장한 인적자본인 어른, 그리고 성장이 끝난 인적자본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필수적인 돌봄노동을 더 많이 맡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대가도 받지 못한 채 남성적 자본의 조력자나 보조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남녀가 과연 연애에서부터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상호주체적으로 평등한 가운데 잘 공조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근 연애와 결혼, 출산을 모두 포기하고 각자도생의 생존방식을 택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늘고 있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인간본성의 전부를 차지하게 되면 개인은 더욱 고립되고, 노동의 성적 종속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가족공동체는 사라질 것이고, 그 자리에 남자와 여자 대신 다양한 섹슈얼리티로 정체성의 구별 짓기가 수행되는 젠더 없는 인간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물론 과학기술은 이런 변화를 촉진할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 젠더의 영역(대표적인 것으로서의 출산과 양육)은 기술이 대신 맡게 될 수도 있다. 20세기 SF소설의 대표작인 헉슬리(Huxley)의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는 이렇듯 젠더문화가 사라진 미래사회의 남녀 관계를 잘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젠더는 사라지고 섹스만 남은 사회이다. 이 세계는 임신이나 출산, 양육 모두 남성과 여성의 손을 떠남으로써 남녀는 적어도 같은 계급 내에서는 완전히 평등하게 되지만, 문제는 표식으로서의 육체적 남성성과 여성성이 더욱 강조됨으로써 오직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신체가 매력적인 자만이 관계 맺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섹시즘적 사회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신세계 체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와 여자는 외양에서 가장 멋진 남성성을 지닌 남자와 가장 육감적인 여성성을 지닌 여성이 된다. 이 바로 생식기 중심의 결합, 다시 말해 욕망하는 몸과 셀프-서비스적 쾌락으로 집중된 성적결합만 남

은 남녀관계가 멋진 신세계의 모습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신세계가 바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기초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물론 혁슬리가 자본주의 체제의 발달과 남녀관계의 변화를 예민하게 의식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우연이라 하기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연관성이라 하겠다. 자본주의로 집중화되고 여기에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이 결합될 경우 상보적 젠더문화는 사라지고 남녀관계 역시 과도하게 성중심적으로 재배치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작품의 디스토피아적 전망이 암시하듯이 개인의 생애주기는 이와 같은 경제체제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 재조정되고, 가성비 낮은 임신과 출산은 과학기술자들과 실험실로 외주화 되며, 정치영역이 사라진 사회는 더욱 개인주의화되어 모두가 자신의 안락에만 집중하는 그런 자본기술-전체주의 사회가 될 수 있다.

4. 나가며: 젠더문화가 지닌 생태적 저항성을 찾아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본성이 호모 폴리티쿠스에서 완전히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전환되면, 다시 말해 남자와 여자라는 상보적 젠더에서 같은 영역을 두고 서로 자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진하는 인적자본으로 전환되면 개인은 더욱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만을 하게 될 것이고, 사회의 공공적, 혹은 공유적 영역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좋은 삶이란 경제적 요소로만 성취될 수 없으며, 젠더관계를 떠나 각자 자본화된 개별자로는 좋은 삶을 누릴 수도 없다는데 있다. 현실에서는 혼밥, 혼술을 즐긴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셜미디어와 같은 가상공간에서는 타인의 공감을 갈망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은 관계지향적인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준다. 비혼율이나 이혼율의 증가, 그리고 출산율의 감소와 1인 가

구의 증가와 같은 현상은 단순히 인구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남녀관계의 변화와 연관된 인문학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는 생산성이나 노동력의 감소를 걱정하고 성장엔진이 꺼질 수 있다는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기이한 고립적 자유주의의 확산과 가상공간을 제외하고는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무연고 인간의 등장은 무엇보다 인간본성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기에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남녀관계의 모든 측면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전 세계로부터 소위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며 조롱을 받았던 일본의 현실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만 남은 사회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고립적이며 고독한 사회가 되는지 잘 보여준다.

무연사회는 독신 가정의 증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 대규모 청년 실직, 저출산, 고령화, 비정규직의 증가 등으로 인해 견잡을 수 없이 인간관계가 약해져 가는 사회를 말하는데, 흥미롭게도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곳은 1990년대 이후 1인 가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일본에서였다. 무연사회란 용어는 2010년 일본 NHK 방송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공식 발표하였다.¹¹⁾ 무연사회가 무서운 것은 이것이 저출산, 고독사 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사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타인과의 공존, 공생을 거부하는 무관심 사회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데 있다. 생태적으로 보자면 오랫동안 인간은 차별과 억압 가운데서도 타인과 공존, 공생하는 삶을 인간다운 좋은 삶으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저마다 고립되어 오직 자기 자신의 욕망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원자화된 개인의 힘으로는 삶의 모든 영역을 포섭하려는 자본의 힘을 이길 수 없게 된다. 일본은 2030년대가 되면 독신가구가 전체 인구의 40퍼센트를 넘을 것이고 한국도 34퍼

11) 일본 NHK방송 특별취재팀은 일본 전역에서 혼자 살다 죽은 이들을 조사한 결과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고독사 사망자가 연간 3만 2000명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여 2010년 1월 <무연사회: 무연사 3만 2000명의 충격>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다. 당시 방송에서 소개되지 않은 뒷얘기와 칼럼을 덧붙여 재구성한 책, 『무연사회』(김범수 역, 서울: 용오름)도 연이어 발간되었다.

센트가 될 것이라고 한다.¹²⁾ 저마다 혼자 고립된 사회가 된다면 남녀불평등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페미니즘의 노력이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데 있는 것은 물론 당연히 아니다. 무관심, 고립, 고독이 삶의 곳곳에 침투하게 되어 모두가 경제적 생존을 위해서만 각자도생하는 사회가 된다면 민주주의 역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듯 민주주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남녀평등이나 해방이나 평화가 이룩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결론적으로 박문철 감독의 다큐멘터리 <파란나비효과>를 통해 단편적이거나 젠더문화가 지닌 고유의 저항정신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파란나비효과>는 2017년에 개봉된 다큐로 사드배치로 정부와 갈등을 겪는 성주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작품에서 페미니즘 관점에서 눈여겨 볼 것은 정부의 사드라는 군사적 대응에 대한 찬반 논쟁이나 사드의 경제적 영향력이나 한중(韓中)과의 외교적 충돌과 같은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다. 영화의 시작부터 눈길을 끄는 것은 여성들의 인터뷰이다. 놀랍게도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주주민들 가운데 사드반대에 앞장선 사람들은 주로 여성들이었고 이들은 대부분 자식을 둔 어머니였다. 물론 이 여성들이 연대하여 사드를 반대한 것은 바로 자녀들의 생명과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남성은 아닌가?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모성만의 영역이 아님이 분명한데 왜 남성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 한 여성주민은 “남자들은 처음부터 우리 생각에 반대했지, 국가가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고”라고 증언하는데, 성주의 남성들이 사드=국가=권력이기에 국가가 하는 일을 개인이 막을 수 없다고 생

12) <경향신문>, 2012년 6월 22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21952105&code=960205.

각한 것은 어쩌면 남성이 오랫동안 호모 폴리틱우스로서의 주체성을 누렸기 때문이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여성들은 호모 폴리틱우스의 영역에서는 배제되었더라도 삶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생계를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과 자연을 돌보는 삶을 오랫동안 유지해왔기에 쉽게 연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런 주장을 통해 모성을 신비화 내지는 신화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며 삶을 꾸려나가는 것은 비산업사회부터 지금까지도 모든 공동체의 지속에 가장 근간이 되는 활동이기 때문이고, 이것을 오랫동안 여성젠더가 떠맡아 온 까닭에 여성들에게 남성들보다 젠더문화가 더 오래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이렇듯 성주 여성들의 사드반대는 자본권력에 저항하는 힘의 진원지가 섹스가 아닌 바로 연대하는 젠더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공통적 젠더문화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래서 각자가 개별화된 성역할로 분리되고, 그마저도 성역할에 염증을 느껴 고립적인 삶을 선택하게 된다면 사드 너머에 자리 잡고 있는 자본의 공격에 저항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저항하는 힘은 연대하는 젠더문화에서 나오는 것이지 상품화되고 자본화되기 쉬운 개별적 섹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성도 마찬가지로 그 본연의 젠더 저항성을 되살려 내려면 여성과의 상보성을 회복하고 공통성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젠더문화를 되살려내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이런 주장은 또 다시 가부장주의로 회귀하자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자급과 자율 자치가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이런 민주주의의 확산 없이는 남녀관계 역시 억압적 속성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자본주의화로 인해 나날이 가속화되는 자연 파괴와 생태위기, 그리고 사회공동체의 해체를 생각해보면 이에 대한 대안적 상상력으로 젠더의 연대적 속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다.

참고문헌

- NHK무연사회 프로젝트팀(2017), 김범수 역, 무연사회, 서울: 용오름.
- 공운경 외(2017), 『생태와 대안의 로컬리티』,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 권김현영 외(2001), 『남성성과 젠더』, 서울: 자음과모음.
- 박형지·설혜심(2004), 『제국주의와 남성성: 19세기 영국의 젠더 형성』, 서울: 아카넷.
- 우자와 히로후미(2008), 이병천 역, 『사회적 공통자본: 진보적 공공경제학의 모색』, 서울: 필맥.
- 웬디 브라운(2017), 『민주주의 살해하기』, 배충효·방진이 역, 서울: 내인생의책.
- 이희원 외(2011), 『페미니즘 차이와 사이』, 서울: 문학동네.
- 정희진 외(2017),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서울: 교양인.
- 피터 라인보우(2012), 정남영 역, 『마그나카르타 선언: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즈』, 서울: 갈무리.
- Adams, Rachel & David Savran (2002), *The Masculinity Studies Reader*, Oxford: Blackwell.
- Butler, Judith (2006), *Gender Trouble*, London: Routledge.
- Huxley, Aldous (2007), *Brave New World*, New York: Vintage Classics.
- Illich, Ivan (1982), *Gender*, New York: Pantheon Books.
- Mies, Maria (1999), *The Subsistence Perspective*, New York: Zed Books.
- _____ (1998), *Patriarchy &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New York: Zed Books.
- Reeser, Todd W. (2010), *Masculinities in Theory*, Oxford: Blackwell.
- Wollstoncraft, Mary (2016), *A Vindication for the Rights of Women*, New York: Wisehouse Classics.
- Warren, Karen J.. Ed. *Ecofeminism: Women, Culture, Nature*. Bloomington: Indiana UP, 1997.

원고 접수일: 2017년 12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8년 1월 26일

게재 확정일: 2018년 1월 31일

ABSTRACT

Gender Formation and the Changes of
Masculinity in the Neoliberal Era:
Looking for the Ecological Alternative

Park, Hye-Young*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gender in the neo-liberal era from an ecological point of view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masculinity as a part of it, and aims to examine the humanistic meaning of this new gender composition. First of all, this paper noticed that the human aspect of homo economicus as an important feature of neo-liberalism appeared on the front. Homo economics means a free individual pursuing a single possessive desire regardless of gender. From an ecological point of view, it is a new view of human beings that emerged after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that is, with the liberal classical economics of the 18th century.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gender composition principle of homo economicus will be introduced with the idea of Ivan Ilyich, Wendy Brown, and Maria Mies. The complementarity is a principle of gender formation in the non-industrial society before capitalism. The role of gender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ocial community, which looked after nature and coexisted, became more vulnerable

*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Inha University

to the commercialization of capitalism, both men and women, as they were reduced to individual gender roles by the time of neoliberalism. In the era of neo — liberalism, the destruction of nature and the dismantling of social communities are accelerating, and the rise of humanity as homo economicus strengthens the sexual characteristic of the body. As a result, human beings have been transformed into more isolated and individualized human capital, and this type of commercialization not only increases homophobia, gender discrimination and isol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lternative gender concept based on ecology.